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국어영역 정답 및 해설

최근 수정일 : 2025. 11. 17.(월)

■ [공통: 독서·문학]

01. ③ 02. ⑤ 03. ④ 04. ① 05. ④ 06. ② 07. ⑤ 08. ③ 09. ⑤ 10. ⑤
11. ③ 12. ① 13. ① 14. ⑤ 15. ① 16. ② 17. ③ 18. ② 19. ④ 20. ③
21. ② 22. ⑤ 23. ① 24. ④ 25. ④ 26. ② 27. ⑤ 28. ⑤ 29. ① 30. ③
31. ② 32. ④ 33. ① 34. ③

[1~3] 독서

[1~3] 독서 이론, ‘독해 능력에 대한 관점’

지문해설 : 이 글은 고프와 동료 연구자들이 독해 능력을 설명하면서 제시한 ‘단순 관점’에 대해 다루고 있다. 단순 관점은 독해 능력을 복잡한 과정 대신 ‘해독’과 ‘언어 이해’로 단순화하여 설명한다. 단순 관점에 따르면 글을 읽을 수 없어도 구어 의사소통을 통해 언어 이해가 발달할 수 있으며, 해독 발달 후에는 독서 경험을 통해 독해 능력이 발달할 수 있다. 이를 바탕으로 단순 관점에서는 해독과 언어 이해가 모두 충분한 독자, 어느 하나가 부족한 독자, 모두 부족한 독자로 독자의 유형을 네 가지로 구분하면서 독해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를 설명한다. 단순 관점은 해독과 언어 이해가 독해 능력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여 연구의 이론적 토대를 마련했다는 의의가 있다.

[주제] 독해 능력을 ‘해독’과 ‘언어 이해’로 단순화하여 설명한 단순 관점

1. 세부 내용 파악

정답해설 : 2문단에 따르면 단순 관점에서는 해독 발달을 위해서는 글 읽기 경험과 말소리 듣기 경험이 모두 필요하다고 본다. 그러므로 독서 경험이 말소리 듣기 경험에 앞선다고 본 것은 아니다.

정답 ③

[오답피하기] ① 1문단에서 단순 관점의 언어 이해는 말로 듣거나 글로 읽은 내용의 의미를 파악하는 능력으로, 중심 내용 파악하기, 추론하기 등을 포함한다고 하였다. ② 3문단에서 단순 관점은 독자의 유형을 네 가지로 나누는데, 구분 기준은 해독의 발달과 언어 이해의 발달이다. ④ 4문단에서 단순 관점은 독해 능력에 해독과 언어 이해가 미치는 영향을 규명함으로써 독해 능력 연구의 이론적 토대를 제공했다는 의의가 있다고 하였다. ⑤ 1문단에서 글의 유형이나 독서 흥미 등의 다양한 요소가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를 고려하여 독해 능력을 복잡한 과정으로 설명한 연구가 많다고 하였다.

2. 내용 비판의 적절성 평가

정답해설 : 독해에는 글의 유형이나 독서 흥미 등의 다양한 요소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복잡한 사고 과정이 수반된다. 그렇지만 단순 관점에서는 그런 부분들을 고려하

지 않고 독해 능력을 해독과 언어 이해로 단순화하여 설명한다. 따라서 독자가 의미를 이해하기까지 머릿속에서 일어나는 작용에 대해 설명하지 않는 점에 대해 비판할 수 있다.

정답 ⑤

[오답피하기] ① 3문단에서 단순 관점도 해독이 부족하여 글의 내용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를 다루고 있다. ② 단순 관점이 독해를 단순화한 것은 맞지만 3문단에 따르면 독해에서 어려움이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은 고려하고 있다. ③ 단순 관점에서는 독해 능력을 해독과 언어 이해로 나누었을 뿐, 독해 능력 발달에 있어 어느 것의 영향이 더 크다고 하지는 않았다. ④ 단순 관점에서는 해독 발달에 글자와 글자 소리에 대한 학습이 모두 필요하므로 글 읽기 경험과 말소리 듣기 경험이 모두 필요하다고 하였고, 말소리 듣기 경험은 청각적 경험에 해당한다.

3. 내용 해석의 적절성 평가

정답해설 : <보기>의 학생 B는 읽기를 통해 단어의 의미 파악이 어렵지만, 말로 들을 때는 중심 내용을 파악할 수 있다. 따라서 단순 관점을 지지하는 입장에서 보면 해독의 발달은 부족하지만, 언어 이해의 발달이 이루어진 경우이다. 2문단에 따르면 해독이 발달되면 글 읽기 경험을 통해서도 언어 이해가 발달할 수 있다고 하였는데, 이 경우는 해독이 발달하지 않은 경우이므로, 글 읽기 경험을 통해 언어 이해의 하나인 중심 내용 파악이 이루어졌다고 해석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정답 ④

[오답피하기] ① 1문단에 따르면 해독은 개별 단어를 인식하는 능력으로, 단어를 빠르고 정확히 소리 내어 읽기, 단어를 한눈에 식별하기 등을 포함한다. 언어 이해는 말로 듣거나 글로 읽은 내용의 의미를 파악하는 능력으로, 중심 내용 파악하기, 추론하기 등을 포함한다. 학생 A는 개별 단어 식별은 잘하지만, 중심 내용 파악을 하지 못하므로 해독 능력은 발달되었으나 언어 이해는 부족하다고 할 수 있다. ② 2문단에서 단순 관점에 따르면 해독 발달에는 글자와 글자 소리에 대한 학습이 필수적이므로 글 읽기 경험과 말소리 듣기 경험이 모두 필요하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단순 관점을 지지하는 입장에서는 학생 A의 해독이 글자와 글자 소리에 대한 학습을 통해 이루어졌을 것으로 볼 것이다. ③ 2문단에서 해독이 발달되면 글 읽기 경험을 통해서도 언어 이해가 발달될 수 있다고 하였으므로, 단순 관점을 지지하는 입장에서는 현재 부족한 학생 A의 언어 이해가 구어 의사소통 경험뿐 아니라 글 읽기 경험을 통해서도 발달할 수 있을 것이라 볼 것이다. ⑤ 학생 B는 해독의 발달이 부족하지만 언어 이해는 발달된 경우이다. 이것은 2문단에서 언급한 해독 발달 전에도 구어 의사소통 경험을 통해 언어 이해가 발달된 것에 해당한다.

[4~9] 독서

[4~9] 주제 통합, '(가) 법조문의 의미 해석 방법 / (나) 보증 계약에 관한 규범'

지문해설 : (가)는 담보를 예로 하여 법조문의 세 가지 의미 해석 방법을 설명하고 있다. 문리 해석은 단어나 문장의 일상적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하는 것이고, 체계적 해석은 그것이 사용된 맥락을 고려하여 그 의미를 파악하는 것이며, 역사적 해석은 입법 과정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그 의미를 파악하는 것이다. 담보는 일상적 의미로는 맡아서 보증함을 뜻하고, 유상 계약의 맥락에서는 거래 대상의 값어치를 보장한다는 의미로, 채권과 관련된 맥락에서는 채권의 실현 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라는 의미로 해석된다.

[주제] 담보를 예로 한 법조문의 세 가지 의미 해석 방법

지문해설 : (나)는 보증 계약에 관한 규범의 주요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보증은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그 채무를 다른 사람이 대신 이행하기로 하는 것으로, 채권자와 보증인을 당사자로 하는 보증 계약에 의해 성립한다. 보증 계약에 대해서는 보증인 보호를 위해 법적 규제가 적용되는데, 보증 계약에는 반드시 보증인의 서명이나 기명 날인이 있는 계약서가 작성되어야 한다. 주채무가 주채무자의 사업과 무관한 금전 채무이고, 보증인이 대가 없이 주채무자에 대한 호의로 보증 계약을 한 경우 보증인은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에 의해 보호받는다. 채권자가 주채무자가 아니라 곧바로 보증인에게만 보증 채무의 이행을 청구한 경우, 연대 보증 특약을 하지 않은 보증인은 주채무자의 재산을 증명하여 보증 채무의 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 그리고 연대 보증인에게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 적용되는지에 대해서는 법조문의 해석 방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주제] 보증 계약에 관한 규범의 주요 내용

4. 글의 구조와 전개 방식

정답해설 : (가)는 법조문의 의미 해석 방법을 세 가지로 구분하여 제시하고 있고, (나)는 보증 계약에 관한 규범의 주요 내용인 채권자, 주채무자, 보증인, 보증 채무 등을 열거하여 설명하고 있다.

정답 ①

[오답피하기] ② (가)는 법조문의 의미 차이가 확대되어 온 이유를 분석하고 있지 않으나, (나)는 보증 계약에 관련되는 주요 개념들을 정의하고 있다. ③ (가)는 담보를 사례로 들어 법조문의 의미를 해석하는 방법을 소개하고 있으나, (나)는 보증 계약의 폐해와 이로 인한 결과를 서술하고 있지 않다. ④ (가)는 법조문의 의미를 파악하는 여러 가지 방법을 제시하고 있으나, (나)는 보증 계약이 역사적 맥락에 따라 변화한 과정을 밝히고 있지 않다. ⑤ (가)는 법조문에 나오는 담보의 의미를 일상적 상황에서 사례를 들어 설명하고 있으나, (나)는 보증 계약의 유형별로 규제의 공통점을 비교하

고 있지 않다.

5. 세부 내용 추론

정답해설 : (가)의 3문단을 통하여 담보는 유상 계약의 맥락에서 당사자 간 거래 대상의 값어치를 보장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가)를 통해 교환 대상 사이의 값어치가 일치하지 않아도 계약은 체결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정답 ④

[오답피하기] ① (가)의 1문단에서 법은 사회 구성원들에게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규범이므로, 성문법을 구성하는 단어나 문장은 그 일상적 의미에 충실히 해석되어야 하며, 이러한 문리 해석이 법 해석의 출발점이라고 했다. ② (가)의 4문단에서 담보는 채권과 관련된 맥락에서는 채권의 실현 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라는 의미로 해석된다고 했다. ③ (가)의 4문단에서 경매 대금을 배당받을 금전 채권자가 여럿이면 각 채권자는 각자의 채권액에 비례하여 배당받는 게 원칙이지만 담보 물권을 가진 자는 경매 대금에서 자신의 채권액부터 먼저 배당받는다고 했다. ⑤ (가)의 2문단에서 문리 해석으로 법조문의 의미를 제대로 파악하기 어려우면, 그것이 사용된 맥락을 고려하여 그 의미를 파악하는 체계적 해석, 입법 과정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그 의미를 파악하는 역사적 해석 등의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고 했다.

6. 내용이 인과관계 파악

정답해설 : ⑦은 주채무자와 보증인 간에 보증의 대가를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이 별도로 체결되었더라도, 이러한 보증 계약이 유상 계약이 될 수 없다는 것이다. 유상 계약이란 그 당사자가 서로 대가를 주고받을 것을 약속하는 계약인데, 보증 계약은 채권자와 보증인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이다. 주채무자가 보증 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므로, 주채무자가 보증인에게 보증의 대가를 지급한다고 하더라도, 보증 계약의 당사자인 채권자와 보증인 간에 서로 대가를 주고받을 것을 약속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이러한 보증 계약 역시 유상 계약은 아닌 것이다.

정답 ②

[오답피하기] ① 주채무자가 보증인에게 지급하기로 한 대가를 채권자가 대신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이것을 ⑦의 이유로 볼 수 없다. ③ 보증 채무를 이행하기 전까지는 보증인이 주채무자로부터 손해 배상을 받을 수 없는지는 알 수 없으며, 이것을 ⑦의 이유로 볼 수 없다. ④ 채권자에게 주채무자 대신 채무를 이행하는 것은 보증인 자신의 채무를 이행하는 것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나, 이것을 ⑦의 이유로 볼 수 없다. ⑤ 보증은 주채무자에 대한 채권의 실현을 담보하는 기능을 수행한다는 점에서 담보 물권과 다름없다고 볼 수 있으나, 이것을 ⑦의 이유로 볼 수 없다.

7. 세부 내용 추론

정답해설 : (나)의 3문단에 따르면, 연대 보증인은 보증 채무의 이행을 거절할 수 있

는 권리를 포기하기로 하는 연대 보증 특약을 한 보증인이다. 따라서 채권자가 곧바로 주채무 전액에 해당하는 돈의 지급을 요구하더라도 그 이행을 거절할 수 없다. 그러나 1문단에 따르면, 보증은 담보 기능을 수행하므로 주채무가 소멸되면 보증 채무도 당연히 소멸된다. 그러므로 채권자가 주채무자에게 채무의 이행을 청구하여 그 채권이 실현되면 더 이상 보증 채무를 이행할 의무가 없음을 알 수 있다.

정답 ⑤

[오답피하기] ① 주채무자에 대한 호의로 대가 없이 보증 계약을 한 자라는 조건은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에 의해 보호될 수 있는 보증인의 조건이지, 연대 보증인의 조건은 아니다. ② (나)의 4문단에 따르면, 문리 해석이 아니라 역사적 해석에 따를 경우 연대 보증인은 이 법의 적용 대상이 될 수도 있다. 입법 과정에서 연대 보증인 보호의 필요성이 강조되었다는 글의 내용을 고려할 때, 문리 해석으로는 연대 보증인이 이 법의 적용 대상이 아니지만, 역사적 해석을 할 경우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 ③ 연대 보증인은 채권자가 주채무자에게 채무의 이행을 청구하지 않고 곧바로 주채무 전액을 요구하더라도 그 이행을 거절할 권리가 없다. ④ 연대 보증인은 채권자와 보증 계약을 하면서 연대 보증 특약을 하는 것이다. 연대 보증 특약을 채무자와 하는 것이 아니다.

8. 구체적 사례 적용

정답해설 : (나)의 3문단에 따르면, 채권자가 주채무자가 아니라 곧바로 보증인에게만 보증 채무의 이행을 청구한 경우, 연대 보증 특약을 하지 않은 보증인은 주채무자의 재산을 증명하여 보증 채무의 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 그러므로 보증 계약서에 병의 서명은 있고 연대 보증 특약이 없는 경우, 을에게 강제 집행 대상 재산이 있음을 병이 갑에게 증명했다면 병은 갑이 요구한 1,000만 원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

정답 ③

[오답피하기] ① (가)의 3문단에 따르면, 매매 계약에서 목적물이 계약 체결 당시부터 있던 하자 때문에 대금만큼의 값어치를 하지 못하는 상태였다면, 매도인은 그 하자 발생의 원인이 무엇이든 담보 책임을 져야 하지만, 매수인이 계약 체결 당시 하자의 존재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에는 담보 책임이 인정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계약 체결 시점에 을이 그 하자를 알 수 있었으면 을은 손해 배상을 받을 권리가 없다. ② (가)의 3문단에 따르면, 매매 계약에서 목적물의 하자로 대금만큼의 값어치를 하지 못하는 상태였다면 매도인은 담보 책임을 손해배상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다. 만약 하자로 인해 매수인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으면 매수인은 계약을 파기하고 대금 환불을 청구할 수도 있다. 그러므로 을이 그 하자에도 불구하고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으면 을은 그 대금의 환불을 받을 권리가 없다. ④ (나)의 2문단에 따르면, 「민법」에 의하면 보증 계약 시 계약서가 작성되어야 한다. 이를 위반한 보증 계약은 무효이지만, 보증 채무가 이행되었으면 보증인이 그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 따라서 병이 을을 대신하여 갑에게 1,000만 원을 지급했으면 이미 보증 채무가 이행된 것이

므로, 보증인인 병은 보증 계약의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 ⑤ (나)의 2문단에 따르면, 보증 계약에는 반드시 보증인의 서명이나 기명 날인이 있는 계약서가 작성되어야 하며 이를 위반한 보증 계약은 무효이다. 따라서 보증 계약서에 병의 서명도 날인도 없으면 보증 계약 자체가 무효이므로,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2조를 어떤 방법으로 해석하든 병은 갑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9. 단어 사용의 적절성 파악

정답해설 : ‘규정(規定)하다’는 ‘양이나 범위 따위를 제한하여 정하다.’의 의미로 쓰였다. ‘바로잡다’는 ‘굽거나 비뚤어진 것을 곧게 하다.’의 의미이므로 바꿔쓰기에 적절하지 않다.

정답 ⑤

[오답피하기] ① ‘구성하다’의 의미는 ‘몇 가지 부분이나 요소들을 모아서 일정한 전체를 짜 이루다.’이다. ② ‘고려하다’의 의미는 ‘생각하고 헤아려 보다.’이다. ③ ‘파기하다’의 의미는 ‘계약, 조약, 약속 따위를 깨뜨려 버리다.’이다. ④ ‘성립하다’의 의미는 ‘일이나 관계 따위가 제대로 이루어지다.’이다.

[10~13] 독서

[10~13] 과학기술, ‘열팽창 현상과 액추에이터’

지문해설 : 이 글은 물체의 온도 변화에 따라 그 길이나 부피가 변화하는 열팽창 현상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온도 변화에 따른 길이의 변화인 선형 열팽창 계수는 온도 변화에 따른 길이의 변화율을 온도 변화량으로 나눈 값이다. 선형 열팽창 계수는 물질마다 그 값이 다른데, 값이 다른 두 물질을 접합한 띠가 온도 변화에 따라 서로 다른 정도로 팽창하여 원의 호 형태로 휘게 되고, 이 힘의 정도는 곡률로 나타낼 수 있다. 선형 열팽창 계수가 다른 두 종류의 물질을 접합하여 온도 변화에 따라 동작하는 액추에이터를 만들 수 있다. 액추에이터를 설계할 때에는 최대 이동 거리, 외부에 가할 수 있는 힘, 반응 완료 시간 등이 고려된다.

[주제] 물체의 온도 변화에 따른 열팽창 현상과 액추에이터 설계

10. 세부 내용 파악

정답해설 : 5문단에서 온도를 올리기 시작한 시점부터 띠의 끝이 최대 이동 거리에 도달하기까지의 시간인 반응 완료 시간은 띠의 두께가 얇을수록 짧다고 하였다. 따라서 서로 다른 물질로 만든 띠의 온도를 올릴 때, 띠의 두께가 얇을수록 힘이 빨리 완료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정답 ⑤

[오답피하기] ① 1문단에서 열팽창이란 물체의 온도 변화에 따라 그 길이, 부피가 변

화하는 현상이라고 하였다. ② 1문단에서 선형 열팽창 계수는 온도 변화에 따른 길이 변화율을 온도 변화량으로 나눈 값이라고 하였다. 열을 가했을 때 길이의 변화량을 가하기 전의 길이로 나눈 값은 길이 변화율이다. ③ 1문단에서 대부분의 물질은 선형 열팽창 계수가 양수라고 하였다. ④ 4문단에서 액추에이터란 열에너지 등을 기계적 동작으로 변환하는 장치라고 하였다.

11. 생략된 내용 추론

정답해설 : 1문단에서 선형 열팽창 계수는 온도 변화에 따른 길이 변화율을 온도 변화량으로 나눈 값이라고 하였다. 온도 변화에 따라 더 많이 변화하는 것은 선형 열팽창 계수가 큰 물질이며, 선형 열팽창 계수가 작은 쪽으로 휘는 것은 온도가 높아지는 경우이다.

정답 ③

[오답피하기] ① 1문단에서 온도 변화에 따른 길이 변화율은 길이의 변화량을 처음 길이로 나눈 값이라고 하였고 길이 변화량은 나중 값에서 처음 값을 뺀 것이라고 하였다. 따라서 선형 열팽창 계수가 음수인 물질이 있다면, 온도가 변화하였을 때 처음 값보다 나중 값이 작을 것이므로 길이가 줄어든다고 추론할 수 있다. ② 1문단에서 인바는 알루미늄에 비해 매우 작은 선형 열팽창 계수를 갖는다고 하였다. 즉 인바는 온도 변화에 따라 길이 변화가 작으므로 온도에 따라 길이 변화가 작아야 하는 부품에는 알루미늄보다 인바가 더 적합하다고 추론할 수 있다. ④ 1문단에서 길이 변화율은 길이의 변화량을 처음 길이로 나눈 것이며, 변화량은 나중 값에서 처음 값을 뺀 것이라고 하였다. 따라서 두 물체의 길이의 변화량이 같다면 처음 길이가 더 긴 물체의 길이 변화율이 더 작다고 추론할 수 있다. ⑤ 5문단에서 띠가 훨수록 고정되지 않은 끝의 이동 거리는 커지며, 최대 이동 거리는 띠의 길이에 따라 달라진다고 하였다. 띠의 길이가 길면 그만큼 더 많은 구간이 구부러져 최대 이동 거리가 커진다. 따라서 동일한 곡률로 휘었다면 길이가 긴 띠의 끝의 이동 거리가 더 길다고 추론할 수 있다.

12. 구체적 사례 적용

정답해설 : 5문단에서 외부에 가할 수 있는 힘이 소멸되는 시점은 최대 이동 거리에 도달했을 때이고, 이는 띠가 휘는 과정에서 최대의 곡률에 도달했을 때와 같다고 하였다. A는 T_1 에서는 물체를 잡을 수 없었고 T_2 에서 물체를 잡을 수 있었다고 하였으므로 a의 곡률은 T_1 로 올렸을 때보다 T_2 로 올렸을 때 크다고 할 수 있다. 한편 B는 T_1 에서 물체를 잡을 수 있었고 T_2 에서도 물체를 잡을 수 있었다고 하였으므로 b가 외부에 가할 수 있는 힘은 T_1 에서 소멸되지 않으며 T_2 에 이르러서도 소멸되지 않고 더 휘어질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T_0 에서 T_1 로 올렸을 때보다 T_2 로 올렸을 때 b의 곡률은 더 크다.

정답 ①

[오답피하기] ② T_1 에서 집게 A는 물체를 잡을 수 없었으므로 집게 B보다 곡률이 작을 것이다. 곡률은 곡률 반지름의 역수이므로 a의 곡률 반지름은 b보다 클 것이다. ③ 5문단에서 반응 완료 시간은 온도를 올리기 시작한 시점부터 띠의 끝이 최대 이동 거리에 도달하기까지의 시간이라고 하였다. 따라서 A와 B 각각의 동작이 멈추는 데 걸린 시간이 서로 같았다면 T_1 에서 최대 이동 거리에 도달하기까지의 시간이 같았다는 것이며 반응 완료 시간이 같다는 것이다. ④ 집게 A는 T_2 에서 물체를 잡을 수 있었다고 하였으므로 a는 T_2 에서 최대 이동 거리에 도달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집게 B는 T_1 에서도 물체를 잡을 수 있었으므로 T_2 에서 b의 최대 이동 거리는 a의 최대 이동 거리 이상일 것이다. ⑤ 3문단에서 힘 민감도가 더 크다는 것은 같은 온도 변화량에서 띠가 더 심하게 힘을 의미한다고 하였다. T_1 에서 집게 B는 물체를 잡을 수 있었지만 집게 A는 물체를 잡을 수 없었고, T_2 가 되어서야 집게 A가 물체를 잡을 수 있었으므로 a보다 b의 힘 민감도가 크다고 할 수 있다.

13. 단어의 문맥적 의미

정답해설 : ‘얻는’은 ‘구하거나 찾아서 가지다.’의 의미로 쓰였다. ‘돌아왔다’는 ‘원래 있던 곳으로 다시 오거나 다시 그 상태가 되다.’의 의미로 쓰였다.

정답 ①

[오답피하기] ② ‘얻었다’는 ‘긍정적인 태도·반응·상태 따위를 가지거나 누리게 되다.’의 의미로 쓰였다. ‘돌아온다’는 ‘무엇을 할 차례나 순서가 닥치다.’의 의미로 쓰였다. ③ ‘얻었다’는 ‘권리나 결과·재산 따위를 차지하거나 획득하다.’의 의미로 쓰였다. ‘돌아왔다’는 ‘먼 쪽으로 둘러서 오다.’의 의미로 쓰였다. ④ ‘얻었다’는 ‘긍정적인 태도·반응·상태 따위를 가지거나 누리게 되다.’의 의미로 쓰였다. ‘돌아온다’는 ‘일정한 간격으로 되풀이되는 것이 다시 닥치다.’의 의미로 쓰였다. ⑤ ‘얻었다’는 ‘긍정적인 태도·반응·상태 따위를 가지거나 누리게 되다.’의 의미로 쓰였다. ‘돌아왔다’는 ‘못, 비난, 칭찬 따위를 받다.’의 의미로 쓰였다.

[14~17] 독서

[14~17] 인문, ‘인격의 동일성에 관한 다양한 관점’

지문해설 : 이 글은 인격 동일성 문제에 관한 철학적 논의를 제시하고 있다. 칸트에 따르면 ‘나는 생각한다’, 즉 ‘자기의식’은 인식을 가능하게 하는 조건일 뿐 영혼의 실재성을 증명하지 않는다. 칸트는 시간의 흐름 속에서 마주치는 복수의 ‘주관’(인식의 주체)이 동일한 ‘인격’(인간)으로 인식된다는 가정이 선행되어야 통시적으로 동일한 인격의 존재를 설명할 수 있다고 보았다. 이러한 칸트의 견해에 대해, 스트로슨은 인격의 통시적 동일성을 뒷받침하는 것은 시공간적 세계에서의 경험이며 칸트는 인격의 문제에서 신체를 간과하였다고 지적하였으며, 롱게네스는 경험으로부터의 추상화 과

정을 거쳐야만 자아를 인식할 수 있는 것은 아니나 인격의 동일성의 기준은 각자가 자신의 것이라고 통시적으로 인식하는 신체라고 주장하였다.

[주제] 인격의 동일성에 관한 칸트의 견해와 그에 대한 비판

14. 세부 내용 파악

정답해설 : 6문단에 따르면 롱게네스는 시공간적 세계를 살아가는 동안 경험하는 것들 사이에서 스스로 선택을 내리기 위해서는 신체가 있고 살아 있어야 한다고 보았다. 그러므로 롱게네스에 따르면 살아 있다는 것은 시공간적 세계 안에서의 선택에 필수적이라는 것은 6문단의 내용과 일치한다.

정답 ⑤

[오답피하기] ① 2문단에서 칸트는 ‘자기의식’이 인식이 이루어지는 것을 가능하게 하는 조건 중 하나일 뿐 ‘영혼의 실재함’을 보장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칸트에 따르면 자기의식은 영혼의 실재를 보장한다는 것은 2문단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다. ② 4문단에서 칸트는 생각의 구성은 시간의 흐름을 따른다고 보고 이러한 구성에 통시적으로 동일한 인격이 반드시 요구된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칸트에 따르면 생각의 구성은 시간의 흐름과 독립적이라는 것은 4문단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다. ③ 5문단에서 스트로슨은 자기의식이 인식을 가능하게 하는 조건이라는 칸트의 견해가 잘못이라고 주장하였다. 그러므로 스트로슨에 따르면 자기의식은 인식을 가능하게 하는 조건이라는 것은 5문단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다. ④ 5문단에서 스트로슨은 인격은 의식과 신체의 복합체이고, 시공간적 세계 안에서 우리의 신체를 매개로 대상이 경험된다는 것은 과학적 사실이라고 하였다. 그러므로 스트로슨에 따르면 의식을 매개로 대상이 경험된다는 것은 5문단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다.

15. 글의 의도, 목적 추론

정답해설 : [A]에서 칸트는 첫 번째 전제에서의 ‘의식’이 함의하는 바와 두 번째 전제에서의 ‘의식’이 함의하는 바를 실재성과 관련하여 구분하면서, 전자는 실재하는 무언가에 대해 의식한다는 뜻이나 후자는 무언가가 꼭 실재함을 뜻하지는 않는다고 하였다. 이같이 [A]에 드러난 칸트의 견해로부터 ‘두 전제’를 연결하는 개념인 ‘의식’의 함의가 실재성과 관련하여 어떤 점에서 서로 다른지 하는 답을 찾을 수 있으므로, ①은 [A]에서 답을 찾을 수 있는 질문으로 적절하다.

정답 ①

[오답피하기] ② [A]에서 ‘복수의 주관이 동일한 인격으로 인식된다.’라는 가정에 대한 반박의 양상을 찾을 수는 없다. ‘복수의 주관이 동일한 인격으로 인식된다.’라는 가정은 4문단에 드러난 칸트의 것으로, 5문단에서 스트로슨에 의해 반박되고 있다. ③ [A]에서 ‘영혼이 실재할 가능성’이 열려 있다는 것이 납득할 수 없는 견해인 근거를 찾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영혼이 실재할 가능성’이 열려 있다는 것은 2문단에 드러난 칸트의 견해로, 칸트는 이러한 견해를 바탕으로 [A]에서 영혼이 인격이라는 견해

를 반박한 것이다. ④ [A]에서 인격의 통시적 동일성이 ‘직접 증명’될 수 있다는 견해를 받아들여야 하는 근거를 찾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4문단에서 칸트는 인격의 통시적 동일성을 직접 증명하는 대신, 시간의 흐름 속 복수의 주관이 동일한 인격으로 인식된다는 가정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⑤ [A]에서 ‘영혼이 자기의식을 한다.’라는 전제가 ‘생각하는 나는 생각한다.’라는 전제와 다름없다는 근거를 찾을 수는 없다. ‘영혼’을 ‘생각하는 나’로, ‘자기의식’을 ‘나는 생각한다’로 재진술할 수 있는 근거는 각각 1문단의 네 번째 문장, 그리고 2문단의 첫 번째 문장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16. 중심 내용 파악

정답해설 : 5문단에 따르면 스트로슨은 시공간적 세계에서 이루어지는 경험적 인식이 자아에 대한 인식에 의존한다고 보고 있지 않다. 스트로슨은 자아에 대한 인식이 시공간적 세계에서 이루어지는, 신체를 매개로 한 경험적 인식들로부터 추상화되는 것이라고 보았다.

정답 ②

[오답피하기] ① 5문단 첫 번째 문장에서 스트로슨은 자아를 인식하는 방식이 경험적 인식의 방식과 구별된다는 칸트의 견해에 동의한다는 것을 통해, 칸트는 자아를 인식하는 방식과 시공간적 세계의 대상들을 경험적으로 인식하는 방식이 다르다고 보았음을 알 수 있다. ③ 자아에 대한 인식이 경험으로부터 추상화된 것이라고 본 5문단의 스트로슨과 달리, 6문단 첫 번째 문장에서 롱게네스가 자아에 대한 인식은 경험으로부터 추상화된 것이 아니라고 한 것을 통해 롱게네스는 경험으로부터의 추상화 과정을 거치지 않고서도 ‘나’, 즉 ‘자아’를 인식할 수 있다는 것에 동의함을 알 수 있다. ④ 6문단의 세 번째 문장에서 롱게네스는 도덕적 존재로서의 인간이 자율성을 지닌 존재라는 칸트의 견해를 인정한다는 것을 통해, 칸트와 롱게네스는 도덕적 존재로서의 인간이 자율성을 지닌다는 것을 수용함을 알 수 있다. ⑤ 4문단에서 칸트가 인격의 통시적 동일성을 직접 증명하는 대신 시간의 흐름 속 복수의 주관이 동일한 인격으로 인식된다는 가정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고 제안한 것을 통해 칸트는 ‘시간의 흐름 속 동일한 인격으로서의 나’라는 개념을 수용함을 알 수 있다. 또 5문단의 네 번째 문장에서 시공간적 세계에서의 경험이 인격의 통시적 동일성을 뒷받침한다는 스트로슨의 주장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는 스트로슨이 ‘시간의 흐름 속 동일한 인격으로서의 나’라는 개념에 대한 수용을 바탕으로 인격 동일성에 관한 논의를 전개하였음을 뜻한다. 그리고 6문단의 첫 번째 문장에서 롱게네스는 통시적으로 동일한 자아가 없이는 경험적 인식이 성립할 수조차 없다고 보고 있음을, 같은 문단의 마지막 문장에서 인격의 동일성의 기준은 통시적으로 인식되는 신체라고 주장함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롱게네스 역시 ‘시간의 흐름 속 동일한 인격으로서의 나’라는 개념에 대한 수용을 바탕으로 인격 동일성에 관한 논의를 전개하였음을 뜻한다.

17. 구체적 사례 적용

정답해설 : 1문단에 제시된, 칸트 이전까지 유력했던 인격의 동일성을 설명하는 견해는 ‘생각하는 나’인 영혼이 단일한 주관(인식 주체)으로서 시간의 흐름 속에 지속한다는 것이었다. 따라서 이러한 견해에 의하면 서로 다른 시간에 걸쳐 ‘생각하는 나’가 지속되고 있다는 것이 곧 인격의 동일성을 설명하기에, ‘생각하는 나’의 지속만으로는 인격의 동일성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갑의 입장은 옳지 않다고 볼 것이라는 반응은 적절하다.

정답 ③

[오답피하기] ① 6문단에 제시된 롱게네스의 견해는 자아와 인격이 시공간적 세계를 경험하는 인간에만 적용되는 개념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견해에 의하면 프로그램으로 재현된 의식만으로 인격이 될 수 있다는 갑의 입장은 옳지 않다고 볼 것이다. ② 5문단에 제시된 스트로슨의 견해는 인격을 의식과 신체의 복합체로 보면서, 우리의 신체를 매개로 하는 시공간적 세계에서의 경험이 인격의 통시적 동일성을 뒷받침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스트로슨의 견해에 따르면 신체를 지니지 않은 존재에게 인격이 귀속될 수 없다고 볼 것이다. 다만 을은 프로그램과 같이 신체를 지니지 않은 존재의 인격 동일성을 주장하고 있으므로, 신체를 지니지 않은 존재에게 인격이 귀속될 수 없다는 입장에 있지 않다. ④ 4문단에서 칸트는 인격의 통시적 동일성을 직접 증명하지 않으며, 시간의 흐름 속에서 복수의 주관이 동일한 인격으로 인식된다는 가정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제안한다. 따라서 이러한 견해에 의하면 인격의 통시적 동일성은 그 것에 대한 가정이 선행될 필요 없이 사고 기능의 동일성을 통해 판단된다는 을의 입장은 옳지 않다고 볼 것이다. 칸트는 상술한 가정이 선행되어야 경험적 판단, 윤리적 판단 등의 생각이 가능하다고 하였다. ⑤ 6문단에 제시된 롱게네스의 견해는 인격은 인간에만 적용되는 개념이며, 인격의 동일성의 기준은 각자가 자신의 것이라고 통시적으로 인식하는 신체라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견해에 의하면 인간과 상이한 존재에 의해서도 동일하게 수행될 수 있는 사고 기능이 인격의 동일성을 판단하는 기준이라는 을의 입장은 옳지 않다고 볼 것이다.

[18~21] 문학

[18~21] 고전 산문 - 작자 미상, 「수궁가」

지문해설 : 이 작품은 별주부와 토끼의 속고 속이는 대결을 통해 조선 사회를 풍자하고 있는 판소리 사설이다. 판소리 「수궁가」는 동물들이 주인공이 되는 우화적 수법을 바탕으로 재치 있고 아기자기한 창과 아니리로 전체를 구성하고 있다. 위기를 극복하는 등장인물들의 재치와 해학적 상황, 당시의 정치 상황과 집권층에 대한 비판과 풍자를 통해 독자에게 재미를 주는 작품이다.

[주제] 지배층의 무능과 헛된 욕심에 대한 풍자

18. 작품의 내용 이해

정답해설 : 별주부가 ‘토 선생 계시오’라고 부른다는 것을 ‘호 생원 계시오’라고 부르자 호랑이가 내려와 자라를 보고 ‘입가심 허여 볼까’ 한다. 그러자 자라는 깜짝 놀라 ‘여보 당신이 뉘라 허시오’라고 묻고 호랑이는 자신을 ‘이 산중 지키는 호 생원 어른’이라고 답한다. 이에 자라는 ‘나는 명색이 자라 새끼’라고 하고 있으므로 자라가 호랑이보다 먼저 자신의 정체를 밝혔다고 할 수 없다.

정답 ②

[오답피하기] ① 사슴은 발론하면서 호랑이에게 ‘수령님의 좋은 꾀를 일러’ 달라고 요청한다. 그러자 호랑이는 ‘수령 말을 듣더니마는 거두룸을 피우며’ ‘노소고하를 막론하고 자세히 말해 보라’하고 있으므로 사슴이 호랑이에게 대책을 구하자 호랑이는 거드름을 부리며 다른 동물들에게 발언하게 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③ 별주부는 자신을 잡아먹으려는 호랑이 앞에서 ‘기왕 죽을 바에는 속임수나 한번 써 보고 죽을 밖에 없’다는 생각을 하고는 ‘목을 길게 내놓으며 네 이놈 호랑아 내 목 나간다’고 한다. 이에 깜짝 놀란 호랑이가 ‘당신 명색이 무엇이오’라고 묻자 별주부는 자신의 ‘목’에 대한 내력을 늘어놓는다. 그리고는 ‘도리랑귀신’에게 ‘이 호랑이 배 갈라라’라고 외치는 방식으로 호랑이를 속이며 ‘호랑이 아랫도리를 꽉 물고’ 만다. 따라서 자라는 자신을 해치려고 드는 호랑이에게 목을 내밀어 놀라게 한 후 도리랑귀신을 들먹이며 맞섰다고 할 수 있다. ④ 별주부가 자신의 ‘아랫도리를 꽉 물고 빽 돌아 놓’자 호랑이는 자라에게 사정사정하게 되고, 이에 자라가 ‘쓸개만 내놔라’라고 하자 ‘여기만 놓아주면 당장에 쓸개를 드리’겠다고 한다. 그러자 별주부는 호랑이가 ‘얼주검이 된 모양이라’고 판단하여 호랑이 ‘아랫도리를 슬그머니 늦춰 놓’는다. 따라서 호랑이가 쓸개를 주겠다며 놓아 달라는 것을 듣고 자라는 호랑이가 얼주검 상태가 되었다고 생각하였다고 할 수 있다. ⑤ 호랑이는 ‘전라도 해남에서 냅다 뛰’어 ‘의주 압록강 가에서’ 한숨을 돌리는데, 남생이를 발견하고는 별주부로 착각하고 ‘또 후다닥 빼 놓’아 ‘함경도 세수람 고개’에 다다른다. 따라서 호랑이는 남생이가 내다보는 것을 보고 자신이 매달려 애걸했던 자라가 자신을 쫓아왔다고 생각하였다고 할 수 있다.

19. 배경의 기능 파악

정답해설 : ⑦에서 자라는 ‘토 선생 계시오’라고 할 것을 ‘호 생원 계시오’라고 하여 호랑이에게 잡아먹힐 위험에 처한다. 따라서 ⑦은 자라가 자신의 행위로 인해 위험에 빠지게 된 공간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자라는 호랑이에게 잡아먹힐 위험에서 벗어나기 위한 방안으로 자신의 목이 ‘이 모양 된 내력’을 늘어놓기 위해 ⑭에서의 일을 언급하고 있다. 따라서 ⑭은 자라가 위험에서 벗어나고자 언급한 공간이라고 할 수 있다.

정답 ④

[오답피하기] ① ⑦에서는 ‘짐승을 잡아먹’는 무서운 인간에 대한 대책에 대한 논의를

하는 공간이다. 이곳에서 사슴의 발론을 들은 호랑이가 ‘모족’들의 의견을 두루 청하고 토끼가 대책을 여쭙고 있다. 이때 별주부가 ‘호 생원 계시오’라고 호랑이를 잘못 부르자 호랑이가 내려와 별주부를 보고는 잡아먹으려다가 큰 낭패를 당하고 간신히 도망하고 있다. 따라서 ⑦은 공동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모족의 노력이 나타나는 공간이라고 할 수 있지만, 자라와 호랑이 사이의 화해가 이루어지는 공간으로 볼 수는 없다. ② ⑦에서 호랑이를 만난 자라는 호랑이에게 잡아먹힐 위기에 처하자 호랑이에게 속임수를 쓰려고 하고 있다. 그래서 ⑦에서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내 목’이 ‘이 모양’이 되었다며 ‘내력’을 언급하면서 목을 고치기 위해 ‘도리랑 귀신 잡어 타고 호랑이 사냥을 나왔’다며 호랑이를 위협하고 있다. 따라서 ⑦은 자라가 자신의 내력을 소개하며 언급한 공간이라고 할 수 있지만, 자라가 호랑이와의 만남을 예상하고 이를 대비한 공간이라고 볼 수는 없다. ③ 자라를 피해 도망한 호랑이는 ‘압록강 가’에서 남생이를 별주부로 착각하고는 ⑦까지 도망친다. 그리고는 ‘내 용맹이나 된 게 여기까지 살아왔’다고 자화자찬하고 있다. 따라서 ⑦은 호랑이가 안도감을 나타내는 공간이라고 할 수 있지만, 자신이 살아남은 것을 자신의 능력을 넘어서는 뜻밖의 행운이라고 여겼다고 볼 수는 없다. ⑤ ⑦에서 호랑이는 사슴과 토끼에게 ‘수령님’이라는 호칭으로 불리고 있으므로 ⑦은 호랑이의 지위가 다른 존재의 발언을 통해 확인되는 공간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⑦에서는 호랑이가 ‘내 용맹이나 된 게 여기까지 살아왔지 잡놈 같았으면 하마 그놈 뱃속에 굳었으렷다’라고 하면서 자신의 능력에 대한 자부심을 보이고 있으므로 호랑이가 다른 존재와의 비교를 통해 자신의 위엄을 부정하는 공간이라고 볼 수는 없다.

20. 인물의 심리, 태도 파악

정답해설 : ⑨는 ‘한 입가심 허여 볼까’ 하며 자신을 잡아먹으려는 호랑이에 대해 자라가 보인 반응이며, ①는 자신의 ‘아랫도리를 꽉 물고 빵 돌아 놓’는 자라에 대해 호랑이가 보인 반응이다. 따라서 ⑨와 ①는 각기 다른 주체가 상대의 말이나 행동으로 인해 생긴 위기 상황에서 보인 반응이라고 할 수 있다.

정답 ③

[오답피하기] ① ⑨는 자라의 ‘호 생원 계시오’라는 말을 들은 호랑이의 반응으로 호랑이가 예의를 갖춘 자라의 태도에 대한 보인 반응이라 할 수 있다. ⑩는 ‘산천이 진동하고 강산이 뒤놉고 땅이 뚝 꺼지난 듯’이 나타난 호랑이에 대한 자라의 반응으로 자라가 예의를 갖춘 호랑이의 태도에 대해 보인 반응으로 볼 수 없다. ② ⑩는 ‘주홍 같은 입 벌리고 흥행행 허는 소리 산천이 진동하고 강산이 뒤놉고 땅이 뚝 꺼지난 듯’이 나타난 호랑이에 대해 자라가 보인 반응이며, ⑨는 ‘한 입가심 허여 볼까’ 하며 자신을 잡아먹으려는 호랑이에 대해 자라가 보인 반응이다. 따라서 ⑩와 ⑨는 동일한 주체가 상대의 당황하는 모습에 대해 보인 반응이라고 볼 수 없다. ④ ⑪는 ‘나는 명색이 자라 새끼요’라고 자신을 소개하는 자라의 말을 들은 호랑이가 ‘내 평생에 원하기를 왕배탕이 원일러니 오늘날 만났구나’ 하며 반기는 반응이며, ⑫는 자신을 잡아먹

으려는 호랑이에 맞서 속임수를 쓰려고 작정한 자라가 ‘목을 길게 내놓으며 네 이놈 호랑아 내 목 나간다’고 하자 호랑이가 보인 반응이다. 따라서 ④는 호랑이가 자신의 숙원이 성취될 수 있음을 확인하면서 보인 반응이라고 할 수 있지만, ⑤는 그렇다고 볼 수 없다. ⑤ ⑥는 자신을 잡아먹으려는 호랑이에 맞서 속임수를 쓰려고 작정한 자라가 ‘목을 길게 내놓으며 네 이놈 호랑아 내 목 나간다’고 하자 호랑이가 보인 반응이며, ⑦는 자신의 ‘아랫도리를 꽉 물고 뻥 돌아 놓’는 자라에 대해 호랑이가 보인 반응이다. ⑧와 ⑨는 상대의 예상치 못한 말과 행동에 대해 보이는 호랑이의 반응이므로 동일한 주체가 상대의 예상 밖 제안에 대해 보인 반응이라고 볼 수 없다.

21. 외적 준거에 따른 작품 감상

정답해설 : 별주부는 호랑이가 ‘자라’든, ‘두꺼비’든 ‘남생이’든 ‘맛진 진미’를 맛볼 수 있으리라며 기뻐하는 호랑이의 모습에 ‘동의보감을 얼마나 통달하였는지 보는 대로 약 취해 먹기로만’ 든다고 생각하고 있다. <보기>에 따르면 이는 현실감을 부여하여 인물, 즉 자라가 처한 상황을 강조함으로써 청중의 흥미를 높이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자라가 ‘동의보감’을 떠올린 것을 현실의 의서를 우화 속 상황에 중첩함으로써 명약을 탐하는 속내를 지식을 내세워 숨기는 위선적 인간에 대한 비판을 드러낸 것으로 볼 수 없다.

정답 ②

[오답피하기] ① 토끼는 ‘같은 우리 모족으로 사람 집에 기식허’면서 ‘무슨 아첨으로 내 잘 맡는 자랑’을 하면서 ‘심산궁곡 층암절벽’까지 들어와 ‘동제 간 살해만 허’냐며 사냥개에 대한 비판을 늘어놓고 있다. <보기>에 따르면 이는 부정적 면모를 지닌 다양한 인간에 대한 비판을 드러내어 청중의 흥미를 높이는 것에 해당하므로, ‘사냥개’에 대한 토끼의 평가는 현실에서 사냥개가 사람에게 길들여진 것을 우화 속 상황에 중첩함으로써 강자의 환심을 사 이익을 얻는 인간에 대한 비판을 드러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③ 호랑이는 토끼의 청대로 사냥개를 ‘다 잡아 먹었으면 네 원통함도 풀고 나도 배부른 꼴을 보’았겠지만 포수로 인해 자신이 다치거나 죽을 수 있다고 말하고 있다. 이는 ‘포수’가 호랑이보다 더 무서운 존재임을 보여 줌으로써 <보기>에 제시된 바와 같이 호랑이가 처한 상황을 강조하여 청중의 흥미를 높이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포수’에 대한 호랑이의 태도는, 호랑이보다 현실의 인간이 지닌 힘을 우화 속 인물들의 위계질서에 중첩함으로써 상대에 대한 두려움을 보여 호랑이가 위신을 잃는 상황을 강조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④ ‘호랑이 아랫도리를 꽉 물고’ 있는 자라에게 호랑이는 자신이 ‘오대독신으로 오십이 다 되도록 슬하 일점혈육이 없’으며, 자신이 ‘죽게 되면 선영에 죄가 망극허’라고 하소연하고 있다. 이는 <보기>에 제시된 바와 같이 호랑이가 처한 상황을 강조함으로써 청중의 흥미를 높이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호랑이가 ‘선영’을 언급한 것은 현실의 윤리를 우화 속 인물이 내세운 구실에 중첩함으로써 자손의 도리를 말하며 곤란한 처지를 벗어나려는 인물의 절박한 상황을 강조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⑤ 호랑이는 자라를 피해 ‘전라도 해남’에서 ‘의주 압록

강 가'까지 '냅다 뛰'어 도망하고 있다. 이는 <보기>에 제시된 바와 같이 현실이라면 불가능한 상황을 가능한 것으로 과장되게 표현하여 청중의 흥미를 높이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호랑이가 '해남'에서 '압록강 가'까지 뛴 데서, 현실의 지명을 우화 속 공간에 중첩함으로써 실제라면 단숨에 달기 불가능한 거리를 이동하는 상황이 과장되게 표현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22~26] 문학

[22~26] (가) 이시영, '그리움' / (나) 고재종, '감나무 그늘 아래' / (다) 이이, '최립에게 주는 글'

지문해설 : (가)는 암울한 현실 속에서도 밝은 미래가 올 것이라는 희망을 버리지 않는 화자의 염원과 기대가 잘 드러나 있다. 화자는 '등불 하나 켜 든 이 보이지 않'는 암울한 현실 속에 있지만, '두고 온 것들' 즉 회복해야 할 가치들을 되찾기 위해 '소금'을 뿌리며 어둠과 고난의 현실을 견뎌내는 사람들을 '우리'라 칭하고 있다. 암울한 현실에서 우리들의 목소리는 다른 목소리를 찾아 목 메이게 부르지만 현실의 혹독함은 이런 목소리조차 잣아들게 한다. 이런 현실 속에서도 화자는 우리가 뿐만 소금이 별빛이 되어 길을 환히 비춰 줄 것이라 말하며 잃어버린 가치가 반드시 되살아 올 것이라는 희망과 염원을 드러내고 있다.

[주제] 어두운 현실을 극복하고 밝은 미래가 올 것이라는 희망과 염원

지문해설 : (나)는 감나무와 화자를 동일시하며, 자연의 성장과 내면의 성숙을 유추적 발상을 통해 드러내고 있다. 감나무의 익어 가는 땅감은 임에 대한 그리움이 심화되는 화자의 처지를 나타낸 것이고, 기다림 끝에 맺은 형형 등불은 이별의 고통을 감내 한 화자가 얻게 된 내적 성숙을 나타낸 것이다. 이처럼 화자는 땅감이 익어 가는 감나무를 보며 이별의 고통을 견디고 기다리면 마침내 더 성숙해질 것이라 여기고 있는 것이다.

[주제] 익어 가는 감을 통해 깨달은 내적 성숙의 과정

(다)는 만물이 소리 나는 이치에서 시작하여 사람이 내는 소리를 연쇄적으로 분류하면서 좋은 소리가 무엇인지 밝히고 있다. 마음에서 기가 움직여 뜻이 소리로 나오는 데 있어 도리에 합당해야 좋은 글[文]이라는 글쓴이의 문학론을 바탕으로, 최립의 문장을 평가하며 칭찬과 당부를 전하고 있다.

[주제] 좋은 문장의 요건과 최립 문장에 대한 평가

22. 작품 간의 공통점, 차이점 파악

정답해설 : (나)에서는 '그 그리움 날로 자라면' '땡감들'은 '주먹송이처럼 커 갈' 것이

라 말하고 있다. 또한 ‘그 기다림’ 날로 익고 ‘서러움’까지 익어서, ‘저 짙푸른 감들’이 ‘형형 등불을 밝힐 것이라면’ ‘세상’은 환하고 ‘하늘’은 부실 것이라 말하고 있다. 이러한 가정적 표현을 통해 그리움과 기다림의 속성을 드러내고 있다. (다)는 가정적 표현을 자주 사용하여 대상의 속성을 드러내고 있다. 예를 들어 첫째 문단의 ‘초목은 움직이지 않으면 그 자체로 소리가 나지 않으나 바람이 불면 소리가 난다.’, ‘금속은 때리지 않으면 그 자체로는 소리 나지 않으나 물건이 때리면 소리가 난다.’는 ‘소리를 내게 만드는 것’이 무엇인지를 드러내고 있다. 둘째 문단의 ‘사람이 그 소리를 듣고 좋아하면 아름다운 소리이고, 미워하면 추한 소리이다.’, ‘입에서 나와 글로 쓰이지 못 하면 흘어지는 소리가 되고, 입에서 나와 글로 쓰이면 실상이 있는 소리가 된다.’ 등에서 아름다운 소리와 추한 소리, 흘어지는 소리와 실상이 있는 소리의 속성을 드러내고 있다.

정답 ⑤

[오답피하기] ① (가)에는 ‘저녁’, ‘밤’, ‘새벽’ 등의 시간적 표현이 나타나 있지만, 계절을 나타내는 소재는 찾을 수 없다. ② (나)에서 화자는 시적 상황에 대해 탈속적 태도를 보인다고 할 수 없다. ③ (다)에서 글쓴이가 자신과 타인의 생각을 비교하는 부분을 찾을 수 없고, 세태에 대한 비판을 명시적으로 드러낸 부분도 찾을 수도 없다. ④ (다)에서는 연쇄의 방식으로 소리를 분류하고 있다. 소리를 ‘쓸모없는 소리-쓸모 있는 소리’로, 쓸모 있는 소리를 ‘아름다운 소리-추한 소리’로, 아름다운 소리를 ‘실상이 있는 소리-흘어지는 소리’로, 실상이 있는 소리를 ‘바른 것-삿된 것/바른 것 같으면서 삿된 것-삿된 것 같으면서 바른 것’ 등으로 이어지는 서술이 그것이다. 그러나 글쓴이는 이러한 연쇄의 방식으로 결국 ‘좋은 소리’가 무엇인지 밝히고 있을 뿐 주체의 태도 변화 과정을 드러낸 것은 아니다.

23. 외적 준거에 따른 작품 감상

정답해설 : (가)의 우리는 소금을 뿌리며 이 저녁을 떠돌고 있지만 ‘사방을 둘러보’아도 우리가 찾는 그리운 이, 즉 ‘등불 하나 켜 든 이’가 보이지 않고, 밤을 지키는 ‘발자국 소리’도 들리지 않는다. <보기>에 의하면 이러한 ‘밤’은 연대를 상실한 암울한 현실 상황으로 볼 수 있고, 의미 구조상 ‘보이지 않고’와 ‘들리지 않는다’의 유사성을 고려할 때, ‘등불 하나 켜 든 이’와 ‘밤을 지키는 발자국 소리’ 역시 의미상 유사한 존재로 볼 수 있으므로, 화자가 ‘밤을 지키는’ 이의 눈을 피해 다닌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감상이다.

정답 ①

[오답피하기] ② (가)에서 우리는 ‘두고 온 것들’이 빛나는 때를 위해 소금을 뿌리며 ‘이 저녁’을 떠돌고, 별 하나 눈뜨지 않는 어둠 속에서 ‘이 새벽길’을 넘고 있다. 우리가 ‘오던 길’을 우리가 뿌린 ‘소금들’이 별빛이 되어 ‘환히 비춰 주’는 것을 보며, 화자는 ‘두고 온 것들’이 빛을 뽑으면서 되살아나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③ <보기>에 의하면 (나)는 자연 속에서 공존하고 있는 명암의 이미지를 바탕으로 성숙

에 대한 성찰을 드러낸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반짝’이는 ‘잎새’와 ‘그늘’을 함께 지닌 ‘감나무’ 아래에 ‘평상을 놓’는 것은, 밝음과 어두움이 어우러져 있는 자연에서 내면에 대한 성찰을 하고 있음을 나타낸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④ <보기>에서 (가)는 연대를 상실한 암울한 현실 상황을 어두운 밤으로 표상하였다고 하였으므로, 함께 어둠을 지새던 ‘별 하나 눈뜨지 않는’ 밤은 함께하던 이가 보이지 않는 상실의 상황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보기>에서 (나)는 자연물과 내면을 동일시하며 시간의 흐름에 따른 변화의 양상을 그려 낸다고 하였으므로, ‘잠 뒤척’이는 ‘밤’은 마음이 감처럼 ‘익어’ 가는 데 필요한 성숙의 시간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⑤ <보기>에서 (가)는 빛이 회복되는 미래에 대한 소망을 드러낸다고 하였다. (가)의 ‘빛나는 때를 위해’ ‘저녁’부터 ‘새벽’까지 길을 걷는 행동에서 그러한 소망을 읽어 낼 수 있다. <보기>에 의하면 (나)는 명암의 이미지를 바탕으로 성숙에 대한 성찰을 드러내었으며, 이러한 성찰은 시간의 흐름에 따른 변화의 양상을 그려 낸다고 하였다. (나)에서 ‘짙푸른 감들’이 ‘등불을 밝힐 것’이라는 전망은, 시간의 흐름을 통해 짙푸른 감이 형형 등불 같은 감으로 성숙하게 될 것이라는 인식을 드러낸 것이라 할 수 있다.

24. 구절의 의미 파악

정답해설 : (가)에서 화자는 ‘두고 온 것들’이 빛나는 때, ‘잊혀진 목소리’가 살아나는 때를 기다리고 있다. (다)의 ②은 ‘사람의 소리로서 남에게 듣기 좋고, 남에게 듣기 좋아 글로 쓰이고, 글로 쓰였으면서 바름에 합당’한 경우이다.

정답 ④

[오답피하기] ① ‘잊혀진 한 목소리’가 ‘잊혀진 다른 목소리의 끝을 찾아 목메이게 부르짖다’의 ‘목메이게’ 부르짖는 행위와, ‘잦아드는 외마디 소리를 찾아 칼날 세우고 우리는 이 새벽길 숨가쁘게 넘고 있는가’에서 ‘숨가쁘게’ 넘고 있는 행위에는 대상에 대한 간절함이 담겨 있다. ② 쓸모 있는 소리 중 사람이 그 소리를 듣고 미워하면 추한 소리라고 하였다. ‘좋은 소리’는 남에게 듣기 좋고, 남에게 듣기 좋아 글로 쓰이고, 글로 쓰였으면서 바름에 합당한 소리라고 하였다. 글로 쓰이지 않았지만 남에게 듣기 좋다면 ‘좋은 소리’는 아니지만 남들이 듣고 좋아하는 소리이다. ③ ‘한 목소리’가 잦아드는 것은 ‘다른 목소리의 끝’에 닿지 못하고 있는 상태를 의미한다. ‘사람의 소리’가 흘어지는 것은 입에서 나와 글로 쓰이지 못한 경우이다. ⑤ ‘외마디 소리’는 잦아들고 있다. 그러므로 화자는 미세한 소리에도 ‘칼날’을 ‘세우’듯이 민감하게 반응하려 한다. 탄식하고 담소하는 소리는 사람의 소리 가운데 쓸모 있는 것이라고 하였다.

25. 배경 및 소재의 기능 파악

정답해설 : ‘땡감들’은 때론 머리 위로 ‘흰 구름’을 이고, 때론 온종일 ‘장대비’를 맞는다. 이러한 과정을 거치며 ‘땡감’은 성숙하여 마침내 ‘형형 등불’을 밝히게 된다.

정답 ④

[오답피하기] ① 바람만이 감나무 잎새를 흔드는 게 아니라고 했을 뿐, 화자가 바람이

감나무 잎새만을 흔든다고 여겼다는 내용은 없다. ② 감나무 열매의 완전한 성숙은 ‘형형 등불’의 이미지로, 그것으로 인해 세상이 환하게, 하늘이 부시게 되는 때로 나타나고 있다. ③ ‘오색딱다구리’는 ‘아까’ 갔고, ‘청설모’는 ‘시방’ 내려온다. ⑤ (나)에서 ‘사랑’의 끝남과 ‘이별’은 그리움, 기다림, 서러움의 정서에 이어져 있고, 이러한 내면 정서의 성숙 과정은 자연물인 감나무의 성숙에 연동되어 있다. 따라서 새로운 사랑의 시작에 대한 기대는 화자의 태도와 무관하다.

26. 외적 준거에 따른 작품 감상

정답해설 : 사람의 소리로서 남에게 듣기 좋고, 남에게 듣기 좋아 글로 쓰이고, 글로 쓰였으면서 바름에 합당하다면 그것을 일컬어 ‘좋은 소리’라고 하였다. ‘소리’가 지난 상반된 특성들이 서로 균형을 이루어야 ‘좋은 소리’라는 내용을 확인할 수 없다.

정답 ②

[오답피하기] ① (다)는 ‘소리’를 화두로 삼아, 만물이 소리를 내는 이치와 좋은 소리에 대해 논하고 있으며, 마지막 문단에서 최립의 문장에 대해 평하고 있다. ③ 남에게 듣기 좋아 글로 쓰이고 바름에 합당하다면 ‘좋은 소리’라고 하며, 좋은 소리를 내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이라고 하였다. 그러면서 최립의 문장은 좋은 소리를 내는 사람에 가깝다고 평가하고 있다. ④ (다)에서 글쓴이는 최립의 문장이 비록 완성된 것은 아니지만 그 뜻은 바름을 향한다고 하였다. 그러면서 학업을 게을리하지 않기를 당부하고 있다. ⑤ (다)에서 글쓴이는 ‘사람의 소리는 기가 크면 그 소리가 크게 나고 기가 작으면 그 소리가 작게 나니, 최립의 기는 가히 크다고 하겠다’고 하여, 그의 문장이 뜻을 크게 드러내고 있음을 칭찬하고 있다.

[27~30] 문학

[27~30] 현대소설 - 박태순, ‘독가촌 풍경’

지문해설 : 작품의 주요 배경이 되는 ‘독가촌’은 두메산골 마을로, 정착할 곳을 찾지 못했던 전국 각지의 사람들이 몰려 형성된 공간이다. 독가촌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피땀을 흘리며 농촌 부락으로서 어느 정도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었지만, 고속도로와 접속이 될 교통 요충지라는 지리적 이점으로 인해 관광지로 주목을 받게 된다. 이에 따라 이권을 노리고 독가촌의 집들을 사들이려는 허명두와 독가촌을 지키고자 하는 온 씨 사이의 갈등을 중심으로 이야기가 전개되고 있다.

[주제] 경제적 이권을 노리고 독가촌의 집들을 사들이려는 허명두와 독가촌을 지키려는 온 씨의 갈등

27. 인물의 심리, 태도 파악

정답해설 : 독가촌의 집들을 사들이고 있는 허명두에 대해 온 씨가 공격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은 맞지만, 이에 대해 허명두가 예둘러 말하여 상대의 관심을 다른 곳으로 돌리고 있다고 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오히려 허명두는 온 씨의 공격적인 태도에 정면으로 대응하여 온 씨의 협박이 자신에게 통하지 않을 것이라 말하고 있다.

정답 ⑤

[오답 피하기] ① 온 씨는 허명두에 ‘실례지만~ 무슨 청년당 일에……?’라는 질문을, 허명두는 온 씨에게 ‘왜? 나를 본 적이라도?’라는 질문을 던지고 있다. 이는 질문을 하며 상대의 반응을 살피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② ‘하지만 허명두 씨는 오랜 만에 증오가 되살아나서’라는 구절을 통해 허명두는 자신이 과거에 느꼈던 증오의 감정을 떠올리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③ 온 씨는 허명두의 말을 듣고 ‘역시 그러셨구만.’이라 말하고 있다. 이는 허명두에 대한 자신의 짐작이 맞았다는 생각을 드러낸 것으로 볼 수 있다. ④ 온 씨는 ‘이제 당신 같은 사람들이 날뛰던 시대는 서서히 지나가고 있는 거요.’, ‘당신 같은 사람이 날뛰던 시대는 서서히 지나가고 있다는 것을.’이라 말하고 있다. 이는 상대의 행위를 평가하는 표현을 반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우리의 피땀으로 이룩한 독가촌을 가지고 서툰 짓을 벌이려고 하다가는 당신이 온전치는 못할 거요.’라고 말하여 허명두가 꾸미고 있는 일을 그만두라고 경고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8. 소재의 기능 파악

정답해설 : 온 씨가 만나는 사람에게마다 퍼뜨린 ④에는 허명두와 만나 확인한 내용, 즉 허명두가 경제적 이익을 노리고 독가촌의 집들을 사들이고 있다는 ⑤의 내용이 반영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온 씨가 허명두에게 한 ‘당신이 무슨 짓을 꾸미고 있는지 다들 알고 있소.’라는 말을 통해 알 수 있다.

정답 ⑤

[오답피하기] ① ⑤의 내용은 허명두가 독가촌의 집들을 사들이고 있다는 것이다. 그 소문을 들은 온 씨가 허명두와 언쟁을 벌이게 된 것이므로, ④가 형성된 과정은 ⑤가 주변에 전해진 것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② ⑤가 퍼지면서 온 씨는 허명두와 만나 언쟁을 벌이게 된 것이고, ④는 온 씨와 허명두의 언쟁의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므로, ⑤가 퍼진 시점은 ④가 퍼진 시점보다 앞선다. ③ ⑤를 들은 온 씨가 허명두와 만나 언쟁을 벌이면서 인물 간의 갈등이 증폭되고 있으므로, ④가 ⑤로 인한 인물 간의 갈등을 해결할 실마리를 제공하고 있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④ 온 씨가 허명두와 만나 벌인 언쟁의 내용은 ④로 금방 독가촌에 퍼지게 되었다. 그런데 허명두가 독가촌의 집들을 사들이고 있다는 ⑤는 진실이므로, 이것이 거짓으로 판명되었다고 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29. 배경의 기능 파악

정답해설 : 독가촌은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던 심심산골, 불모의 황무지’였지만 ‘고속 도로와 접속이 되게 될 교통 요충지가 되었을 뿐 아니라 관광지로서의 좋은 조건을

모두 구비하고 있다'는 것이 알려지면서 하루아침에 각광을 받는 지대가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정답 ①

[오답피하기] ② 지목 변경으로 인해 기득권을 부여받는 사람은 허명두가 아니라 이미 지어진 집 임자이다. 허명두는 이 기득권을 획득하고자 독가촌의 집들을 사들이고 있다. 따라서 허명두가 지목 변경으로 기득권을 부여받고서 집들을 사들이고 있는 것은 아니다. ③ 독가촌은 농촌 부락으로서 어느 정도 자립할 수 있는 터전을 굳혀 놓았다는 내용이 제시되어 있으므로, 독가촌이 여전히 경제적으로 자립하기 어려운 곳이라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④ 독가촌은 농촌 부락으로서 귀농 개척자들이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닦아 놓은 곳이다. 따라서 독가촌이 농업 중심의 기존 생활양식을 바꾸려 하는 곳이라고 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⑤ 독가촌은 고속도로와 접속이 될 교통 요충지일 뿐만 아니라 관광지로서의 좋은 조건을 모두 구비하고 있다는 내용이 제시되어 있다. 따라서 관광지로서의 좋은 조건을 갖추게 하려고 마을 사람들이 피땀 흘려 노력한 곳이 독가촌이라고 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30. 외적 준거에 따른 작품 감상

정답해설 : <보기>를 통해 이 작품의 서술자는 부정적 인물인 허명두에게 초점화하여 그의 내면을 서술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②은 허명두가 상대, 즉 온 씨를 비롯한 독가촌 사람들의 생각이나 처지를 헤아리는 모습을 보여 준다. 이는 상대의 생각을 헤아림으로써 변화의 부정성을 인정한 것으로, 무엇이 변화의 원인인지를 허명두가 달리 본 것이 아니다. 따라서 ②을 허명두의 왜곡된 시선이 드러난 것으로 이해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정답 ③

[오답피하기] ① '서로 말이 통하지 않는'다는 것은 상대와의 인식 차이를 좁힐 수 없다는 허명두의 생각을 드러낸 것이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서로 말이 통하지 않는 두 종류의 인간군들이' 있다고 서술하고 있는데, 이는 인물과 상대를 '두 종류의 인간군'으로 일반화하여 상대와 소통이 어렵다는 자신의 생각을 타당한 것처럼 서술한 것으로 볼 수 있다. ② 허명두는 경제적 이익을 얻기 위해 독가촌의 집들을 사들이는 자신의 행동을 '싸움'이라고 인식하고 있다. 독가촌 사람들의 삶을 송두리째 뿌리 뽑을 수 있는 자신의 행동을 '싸움'이라고 인식하는 것은 자신의 행동에 명분이나 사리의 옮음이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타당한 것임을 드러낸 것으로 볼 수 있다. ④ '명분 보다는 실리를 추구해 오는 측이 항상 이겨 오고 있었'다는 것은 '실리'를 추구한 측이 언제나 우위를 차지했다며 과거의 경험을 일반화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는 현재 상황에서도 실리가 우선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합리화한 것으로 볼 수 있다. ⑤ 실리를 추구하는 사람들이 명분을 추구하는 사람들을 이기는 것이 '아직까지는 완전히 지나간 게 아니라는' 것은 현실의 변화를 인식하면서도 기존의 선택, 즉 실리를 추구하는 선택을 고수하려는 허명두의 자기중심적 태도가 드러난 서술로 볼 수 있다.

[31~34] 문학

[31~34] 고전시가 - (가) 구강, ‘복새곡’ / (나) 작자 미상, ‘이 시름 저 시름 여러 가지 시름~’ / (다) 작자 미상, ‘강원도 설화지를 제 크기로~’

지문해설 : (가)는 작가가 1812년 9월부터 1813년 3월까지 암행어사로서 함경도 지방을 다녀온 경험을 노래한 장편 기행 가사이다. 작가는 56세의 나이에 어사가 되어 추운 겨울에 험준한 함경도를 다니면서 민정을 시찰하며 경험한 여러 가지 견문을 작품에 사실적으로 기술했다. 이 작품은 조선 시대에 암행어사가 지은 유일한 가사로 암행어사의 행적과 19세기 함경도의 민속을 살필 수 있는 자료의 역할도 하고 있다. 이 작품은 주로 사건 현장을 생생히 재현하거나 일상 어휘와 방언, 등장인물의 말투를 그대로 가져와 현장감을 높이고 있으며, 그 과정에서 해학적 방식으로 독자의 흥미를 높이고 있다.

[주제] 암행어사로서 민정을 시찰한 체험과 백성들에 대한 애민 정신

(나)는 작자 미상의 사설시조로 정월 보름날 방패연에 여러 가지 근심거리를 작은 글씨로 써서 멀리 띄워 보냄으로써 액막이를 했던 세시 풍속을 담고 있는 작품이다. 하얀 실에 연을 매어 얼래(연줄을 감는 데 쓰는 기구)를 끝까지 풀어서 띄우며 큰 잔에 술을 부어 근심거리를 가져가라고 전송하면, 연이 동해를 건너 어느 나무에 걸렸다가 바람 솔솔 불고 비가 후둑후둑 내릴 때 자연히 연과 함께 근심도 사라지기를 바라는 소망을 드러내고 있다.

[주제] 여러 가지 근심을 없애려는 소망

(다)는 작자 미상의 사설시조이다. 강원도의 설화지(강원도 평강에서 나는 빛깔이 흰 종이의 하나)로 만든 연을 갖은 재주를 부리며 허공에 날려 먼 곳에 떨어져 있는 임을 낚아서 데리고 오고 싶다는 화자의 간절한 소망을 드러내고 있다.

[주제] 임에 대한 그리움과 임과 함께 있고 싶은 소망

31. 표현상의 특징 파악

정답해설 : (가)는 ‘가슴에 열이 나니 먹느니 냉수로다’, ‘고맙단 이 잠깐이오 원수는 대대로다’ 등에서 대구와 대조 표현을 사용하여 화자의 괴로운 처지를 드러내고 있다.

정답 ②

[오답피하기] ① (가)의 ‘여기에서 종성 가기 오십 리가 된다 하니’를 남의 말을 인용한 것으로 볼 수도 있으나, 이는 여정의 거리를 제시한 것이지 목적지의 위험성을 드러낸 것은 아니다. ③ (나)는 ‘방패연’이라는 구체적 소재를 활용하여 여러 가지 근심을 없애려는 소망과 행위를 드러낸 것으로 볼 수 있다. ‘풍소소 우낙락할 제’는 상황

을 가정한 것이지, 자연 현상의 변화를 드러내는 것은 아니다. ④ (나)에서 ‘서풍’과 ‘동해’를 방위의 의미를 포함한 어휘로 볼 수 있지만, ‘방패연’이 서로 반대 방향으로 이동하는 상황을 드러내고 있지 않다. ⑤ (나)는 ‘하얀 실’, ‘백룡’ 등의 색채를 나타내는 표현을 통해 방패연을 띄우는 움직임과 연의 이동을 뚜렷하게 드러내고 있다. 하지만 (가)는 색채를 나타내는 표현이 나타나 있지 않다.

32. 시어, 시구의 의미와 기능 파악

정답해설 : ⑩은 어사인 화자가 술을 좋아한다는 말을 듣고 먼 곳에서 오는 손님에게 좋은 술을 싸게 팔도록 한 이 부사의 잔꾀를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내용이다. (나)에서 화자와 이 부사 사이에 옛 인연이 있다는 내용은 찾을 수 없다.

정답 ④

[오답피하기] ① 화자가 탄 말이 지친 상황이고, ⑦ 다음으로 이어지는 ‘서성 밖에 잠깐 쉬어’에서 서성 밖까지 이르는 여정이 고단해 행로를 멈추었음을 알 수 있다. ② ⑩은 촌사람의 솜씨로 볼 수 없는 좋은 술맛을 나타내는 표현으로, 이는 이 부사가 미리 준비한 술이라는 출처를 판단하는 근거가 된다. ③ ⑩의 ‘수상히 오는’은 장사에게 화자가 어떻게 보였을지를 진술한 것으로, 어사인 화자에게 술을 싸게 판 것임을 추정하는 단서가 된다. ⑤ ⑩은 얼음물에 빠져 온몸이 젖은 화자가 남여 위에 앉아 얹기로 발을 드리워 자기의 모습을 가리는 것을 의미하며, 이어지는 ‘그 누가 저어하리’에서 그런 화자의 모습을 아무도 두려워하지 않아 위엄을 세우기 어렵다는 인식을 나타내는 것으로 볼 수 있다.

33. 배경 및 소재의 기능 파악

정답해설 : ‘하얀 실 한 열레를 끝까지 풀어 띠울 제’를 통해 ⑩는 감긴 실을 끝까지 풀어서 띠워 멀리 떠나보내려는 대상으로 이해할 수 있다.

정답 ①

[오답피하기] ② (나)는 ⑩가 동해 바다를 건너가서 외로이 서 있는 나무에 걸렸을 때 바람이 불고 비가 내리는 상황을 가정한 것으로, 여러 가지 근심을 없애는 것을 기원하는 것이지 비를 기원하는 것이 아니다. ③ (다)의 ‘바람이 한창인 제’를 통해 ⑩를 바람이 잣아들었을 때 하늘에 띠워 두는 대상으로 볼 수 없다. ④ ⑩는 여러 가지 근심을 없애려는 소망과, ⑩는 임과 함께 있고 싶은 소망과 관련이 있다. 하지만 임에게 보내려는 전언(전하는 말)을 담고 있는 것은 아니다. ⑤ (나)의 ⑩와 (다)의 ⑩에 집단의 행동이나 의지는 나타나지 않는다.

34. 외적 준거에 따른 작품 감상

정답해설 : (다)에서 연이 ‘솟아올라 구름’에 걸치는 것을 보고 화자는 먼 곳에 있는 임을 ‘줄맥을 길게 대어’ 자신이 있는 곳으로 낚아 오려는 소망을 드러내고 있다. 즉, 대상의 역동성이 화자의 욕망을 불러일으킨다고 볼 수 있으나, 임을 자기 곁으로 데

■ [선택: 언어와 매체]

35. ③ 36. ② 37. ④ 38. ④ 39. ① 40. ② 41. ④ 42. ⑤ 43. ② 44. ④
45. ③

[35~39] 언어

[35~36] 문자와 소리의 대응 관계

지문해설 : 이 글에서는 15세기 국어와 현대 국어에서 문자와 소리의 대응에 어떠한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는지를 다양한 사례를 통해 설명한다. 1문단에서는 문자 자체는 형식이고 그 문자가 나타내는 소리가 내용임을 먼저 설명하고 둘 사이의 결합은 자의

적임을 강조한다. 2문단에서는 현대 국어의 한글 자모 24자에 대해 안내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 3문단에서는 두 소리의 연쇄를 나타내는 모음자, 단모음과 이중 모음을 나타내는 모음자, 어울려 쓴 자음자에 대해 사례를 들어 설명한다. 4문단에서는 어울려 쓴 자모가 두 종류의 소리와 결합하는 경우, 하나의 이중 모음이 어울려 쓴 자모 두 종류와 결합한 경우를 대별하여 다루며, 5문단에서는 형식과 내용의 결합이 변할 수도 있음을 예시한다.

[주제] 15세기 국어와 현대 국어에서 문자와 소리의 대응

35. 중세 국어의 이해

정답해설 : 3문단에 따르면 한글 자모 24자 중 모음자에는 ‘뇨’처럼 두 소리의 연쇄를 나타내는 것이 있다. 자음자 14자 중에서 두 소리의 연쇄를 나타내는 것은 없다.

정답 ③

[오답피하기] ① 1문단에서 문자 ‘ㅁ’은 형식이고, 그 내용은 양순 비음이라고 한 것처럼 문자 ‘ㅏ’는 형식이고, 그 내용은 ‘ㅏ’가 나타내는 소리인 [a]이다. ② 현대 국어에서는 연구개 비음을 ‘ㅇ’으로 나타내는 데 비해 15세기 국어에서는 ‘օ’으로 나타냈다는 1문단의 설명과 ‘օ’은 내용은 그대로이면서 형식이 바뀐 예라는 5문단의 설명에 비추어 볼 때 ‘콩’의 ‘օ’과 ‘콩’의 ‘օ’은 그 내용이 같다. ④ 3문단에서 ‘ㅋ’는 ‘ㅋ’와 ‘ㅣ’를 어울려 쓴 것이라고 하였고, 4문단에서 어울려 쓴 모음자 ‘궤’를 제시하고 있다. ‘궤’는 ‘ㅜ’, ‘ㅓ’, ‘ㅣ’를 어울려 쓴 것이다. ⑤ ‘뉘’는 ‘ㅜ’와 ‘ㅣ’를 어울려 쓴 것이고, 4문단에서 설명하는 것처럼 단모음으로 발음하지만 이중 모음으로도 발음 할 수 있다. 즉, 단모음, 이중 모음 두 종류의 소리를 나타낸다.

36. 중세 국어의 이해

정답해설 : ‘ㅌ’는 <보기>에서 예시하는 ‘ㅂㅅ, ㅂㄷ, ㅌㅅ’ 등처럼 초성에서 두 소리의 연쇄로 발음되는 자음군을 나타낸 합용 병서에 해당한다. 즉, ‘ㅂ’이 나타내는 소리와 ‘ㅅ’이 나타내는 소리의 연쇄를 나타낸다. 또한, 15세기 국어의 합용 병서 ‘ㄔ’으로 현대 국어의 ‘ㄱ’처럼 된소리 [k']를 나타냈다는 3문단의 설명에 비추어 볼 때, ‘ㅌ’의 ‘ㅅ’은 된소리 [t']를 나타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ㅌ’의 ‘ㅅ’은 현대 국어의 ‘ㅍ’과 형식은 다르나 내용은 된소리 [t']라는 점에서 같다.

정답 ②

[오답피하기] ① 15세기 국어 ‘았겨(았기어)’의 ‘ㅋ’와 현대 국어 ‘아껴(아끼어)’의 ‘ㅋ’는 둘 다 반모음과 단모음의 연쇄인 이중 모음이라는 점에서 내용이 같으며, 문자의 형태가 그대로라는 점에서 형식도 같다. ③ ‘△’은 현대 국어에서 쓰이지 않는 문자라는 점에서 형식이 소멸된 것이다. 또한 ‘△’이 나타내는 소리인, 15세기 국어 ‘ㅅ’과 같은 조음 위치의 유성 마찰음은 현대 국어에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그 내용도 소멸되었다. ④ ‘、’는 현대 국어에서 쓰이지 않는 문자라는 점에서 형식이 소멸된 것이다. 또한 ‘、’가 나타내던 소리가 현대 국어에서는 ‘ㅏ’나 ‘—’로 나타난다는 점에서

그 내용은 다른 소리로 변한 것이다. ⑤ 5문단에서는 15세기 국어의 ‘ㅋ’는 현대 국어와 달리 이중 모음을 나타냈기 때문에 형식은 그대로이면서 내용이 변한 예라고 설명한다. 마찬가지로, 현대 국어의 ‘ㅈ’은 15세기 국어에서는 경구개음이 아니었다는 점에서, 15세기 국어의 ‘ㅈ’과 현대 국어의 ‘ㅈ’은 형식은 같고 내용은 다른 경우에 해당한다.

37. 문장 성분과 문법 요소

정답해설 : 관형사 ‘온갖’이 관형어로 쓰였으며, ‘하셨다’에 선어말 어미 ‘-(으)시-’가 나타난다. 또한, 한 자리 서술어 ‘길어지다’, 두 자리 서술어 ‘하다’를 포함한다.

정답 ④

[오답피하기] ① 관형사 ‘세’가 관형어로 쓰였으며, ‘편찮으신’에 선어말 어미 ‘-(으)시-’가 나타난다. 또한, 한 자리 서술어 ‘편찮다’, 세 자리 서술어 ‘모시다’를 포함한다. ② 관형사 ‘몇’이 관형어로 쓰였으며, ‘읽으시다’와 ‘드셨다’에 각각 선어말 어미 ‘-(으)시-’가 나타난다. 또한, 두 자리 서술어 ‘읽다’, 두 자리 서술어 ‘들다’를 포함한다. ③ 관형어로 쓰인 관형사가 없으며, ‘합격하셨다’에 선어말 어미 ‘-(으)시-’가 나타난다. 또한, 한 자리 서술어 ‘끊임없다’, 두 자리 서술어 ‘합격하다’를 포함한다. ⑤ 관형사 ‘저’가 관형어로 쓰였으며, 높임 표현을 나타내는 선어말 어미가 나타나지 않는다. 또한, 세 자리 서술어 ‘팔다’, 한 자리 서술어 ‘맛있다’, 두 자리 서술어 ‘다시다’를 포함한다.

38. 담화의 특성

정답해설 : ⑧의 ‘그건’은 간식 준비가 훨씬 힘들다는 정원의 발화를 가리키며, ⑨의 ‘그건’은 앞서 이야기한 ‘□□ 고등학교’와의 역할 분담을 가리킨다. **정답 ④**

[오답피하기] ① ⑦의 ‘여기’는 현재 담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카페를 의미하고, ⑩의 ‘거기’는 ‘□□ 고등학교’를 의미한다. ② ⑨의 ‘이번’은 곧 다가올 때를 가리키기 때문에 발화시와 동일하지 않으며, ⑪의 ‘그때’는 작년에 연합 체육 대회를 했던 때를 가리키기 때문에 발화시 이전의 때를 가리킨다. ③ ⑫의 ‘그쪽’과 ⑬의 ‘거기’는 ‘□□ 고등학교’를 나타내며, 이는 청자를 포함한 대상이 아니다. ⑤ ⑭의 ‘그래’는 상대의 발화에 동의한다는 의미이고, ⑮의 ‘그러네’는 ‘만족스럽지 않다’, ‘괜찮지 않다’의 의미로 대화의 맥락상 상대의 발화대로 수행하기는 어렵다는 의미이다.

39. 형태소의 이해

정답해설 : ‘시작되자’에 쓰인 접미사 ‘-되-’는 명사 어근 ‘시작’에 결합하여 동사 ‘시작되다’를 파생한다. ‘낮쳤다’에 쓰인 접미사 ‘-추-’는 형용사 어근 ‘낮-’에 결합하여 동사 ‘낮추다’를 파생한다. **정답 ①**

[오답피하기] ② ‘낮쳤다’의 ‘-추-’는 사동 파생 접미사이고, ‘빼았겼다’의 ‘-기-’는 피동 파생 접미사이다. ③ ‘시작되자’의 ‘-되-’는 피동 파생 접미사이고, ‘말리는’의 ‘-리

-’는 사동 파생 접미사이다. ④ ‘친구랑’의 ‘랑’은 앞말이 함께 어떤 행동을 하거나 상대로 하는 대상임을 나타내는 부사격 조사이고, ‘미술관이랑’의 ‘이랑’은 둘 이상의 사물을 같은 자격으로 이어 주는 접속 조사이다. 따라서 두 조사는 이형태 관계가 아니다. ⑤ ‘만나’의 어미 ‘-아’는 연결 어미이고, ‘가’의 어미 ‘-아’는 종결 어미이다.

[40~42] 매체

40. 매체의 유형에 따른 특성

정답해설: (나)에는 생산자가 수령 시간을 놓쳐 좌절했던 상황을 설명하며, 그 감정을 표현하기 위해 ‘안타깝게도 책을 놓쳤습니다.’라는 문자 언어와 함께 와 같은 그림을 넣어 자신이 느낀 감정을 보완하였다. 하지만 (가)에는 감정과 관련하여 문자 언어로 표현된 내용이 없으며, 이를 보완하기 위한 그림도 활용되지 않았다.

정답 ②

[오답피하기] ① (가)의 하단에는 ‘◇◇ 시립 도서관 누리집 바로 가기’라는 문구와 함께 링크가 제시되어 있어, 수용자가 도서관 누리집에 접속하여 제시된 내용과 관련된 추가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나)에서는 ◇◇ 시립 도서관에서 보낸 ‘상호 대차’ 온라인 알림 메시지에 대해 언급하며 그 밑에 관련 동영상을 볼 수 있도록 링크를 제공하고 있다. 따라서 (가)와 (나)에는 모두 제시된 내용과 관련된 정보에 수용자가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마련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③ (가)에는 생산자가 정보를 게시한 날짜와 시간이 표시되어 있지 않다. 이와 달리 (나)에는 ‘게시 일시: 2025. 10. 17. 20:32’와 같이 정보를 게시한 날짜와 시간이 표시되어 있다. ④ (가)의 ‘이 메시지는 수신에 동의한 회원에게만 발송됩니다.’를 통해 한정된 수용자에게만 정보가 제공됨을 알 수 있다. 이와 달리 (나)는 ‘공개 유형: 전체 공개’라는 내용을 통해 한정된 수용자에게만 정보가 제공되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⑤ (가)에는 생산된 정보에 대한 수용자의 반응이 표현되어 있지 않다. 이와 달리 (나)에는 ‘♥공감 56’과 같이 생산된 정보에 대한 수용자의 반응이 시각적 기호로 표현되어 있다.

41. 매체 자료 수용의 관점과 가치

정답해설 : ‘동동’은 ‘저도 수령 마감일을 ~ 못 빌렸어요.’라며 ‘꽃잎’의 생각을 자신의 경험과 연결 짓고, ‘10업무일 정도로 기간을 늘려 달라고 도서관에 건의해 보려고요.’라며 자신의 계획을 밝히고 있다. 이때 ‘동동’이 밝힌 계획은 도서 수령 기간 연장에 대한 건의이므로 재신청 불가 기간 연장에 대한 자신의 계획을 밝히고 있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정답 ④

[오답피하기] ① ‘살구’는 ‘알려 주신 상호 대차 덕분에 ~ 대부분을 구했어요.’라며 (나)의 정보를 유용한 정보로 수용하고 이를 적용해 긍정적 결과가 있었음을 드러내고

있다. ② ‘태양’은 ‘살구’의 상호 대차 이용 경험에 대한 댓글에서 ‘대부분을 구했어요’라고 한 부분에 대해 ‘그렇다면 책을 다는 못 구하신 건가요?’라며 자신이 이해한 바를 질문하고, ‘그럼 전국 단위 상호 대차인 ~ 이용해 보세요.’라며 도움이 될 만한 정보를 제시하고 있다. ③ ‘꽃잎’은 ‘명호 님처럼 ~ 예상 못 한 일이 생길 수도 있잖아요.’라고 언급하며, 이를 근거로 ‘도서 수령 기간을 늘리면 좋겠’다는 자신의 바람을 드러내고 있다. ⑤ ‘바다’는 ‘기간을 늘리면 좋은 할 텐데’라며 ‘동동’의 의견에 일부 공감하고, ‘10업무일은 너무 긴 ~ 그 책을 급히 찾는 또 다른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라며 해당 의견이 실현됐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언급하고 있다.

42. 매체의 정보 구성 방식

정답해설 : ‘카드 4’에서는 상호 대차 이용에 대한 유의 사항 중 수령 기간 계산에 대한 정확한 내용을 달력 이미지로 제시하고 있다. 수령 시간(09:00~18:00)에 대한 정보는 ‘카드 4’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정답 ⑤

[오답피하기] ① ‘카드 1’에서는 (나)의 ‘수행평가에 쓸 책을 구하지 못해 막막했는데’라는 경험을 반영하여, 책을 구하기 어려운 문제 상황을 책장과 도서관을 배경으로 두고 걱정하는 모습으로 제시하였다. ② ‘카드 2’에서는 상호 대차에 대한 (가)의 설명 중 ‘다른 도서관에 신청하여 ~ 받아 볼 수 있는 도서 대출 서비스’라는 내용을 반영하여 ‘다른 도서관’에서 ‘지정 도서관’으로 책이 이동하는 모습을 날개 달린 책의 이미지로 제시하였다. ③ ‘카드 3’에서는 (나)의 ‘도서관끼리 연결되어 있으니 마치 하나의 거대한 도서관을 이용한 것처럼’이라는 비유적 표현을 반영하여, 상호 대차의 효용성을 여러 도서관이 연결되어 하나의 도서관을 이루고 있는 모습으로 제시하였다. ④ ‘카드 4’에서는 (나)의 ‘도서관마다 대출 권수나 수령 시간 등 약간의 차이가 있었어요.’라는 내용을 반영하여, 상호 대차 이용 방법이 도서관마다 다를 수 있어 확인해야 함을 검색창의 이미지와 ‘개별 도서관 누리집에서 ~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세요.’라는 문장으로 제시하였다.

43. 매체 언어의 표현 방법

정답해설 : ⑥의 ‘-어요’는 일반적으로 설명·의문·명령·청유의 뜻을 나타내는 종결 어미로 쓰인다. 그런데 담화 맥락을 고려할 때, ⑥는 의문문의 형식을 취하면서도 문자 메시지의 내용이 예상치 못한 일이어서 믿기지 않음을 드러낸다. ⑥에서 ‘-어요’를 사용하여 문자 발송 주체가 응답을 요구하고 있음을 나타낸다고 보기는 어렵다.

정답 ②

[오답피하기] ① ④에 쓰인 ‘-답니다’는 화자가 이미 알고 있는 것을 객관화하여 청자에게 일러 줄을 나타내는 종결 어미이다. ④에서는 ‘-답니다’를 사용하여, 자신이 도착 문자를 받았다는 사실을 블로그의 독자들에게 전달한다. ③ ⑤에 쓰인 ‘에야’는 시간·공간상의 일정한 범위를 강조하여 나타내는 격 조사이다. ⑤에서는 ‘에야’를 사용

하여, 자신이 신청 도서를 수령한 시점을 강조하여 나타낸다. ④ ⑤에 쓰인 ‘-아야지’는 앞 절의 일이 뒤 절 일의 조건임을 나타내는 연결 어미이다. ⑥에서는 ‘-아야지’를 사용하여, 유의 사항의 확인이 실수를 하지 않기 위한 조건임을 나타낸다. ⑤ ⑥의 ‘-르게요’는 종결 어미 ‘-르게’에 청자에게 존대의 뜻을 나타내는 보조사 ‘요’가 붙은 것이다. ‘-르게’는 어떤 행동에 대한 약속이나 의지를 나타내는 종결 어미이다. ⑦에서는 ‘-르게’를 사용하여, 상호 대차를 소개하는 카드 뉴스를 블로그에도 올리겠다고 약속하고 있다.

[44~45] 매체

44. 뉴미디어의 특성

정답해설 : ②과 관련하여 혜정은 세 번째 발화에서 ‘같이 보면서 이야기하게 현재 공유 화면을 약간 아래로 내려 줘.’라고 다겸에게 요청하였으며, 이에 대해 다겸은 ‘알겠어.’라며 따르고 있다. 혜정의 요청에 따라 다겸이 공유 화면을 아래로 내린 것 이지, 화면 공유의 권한을 혜정에게 넘긴 것은 아니다.

정답 ④

[오답피하기] ① ⑦은 회의실로의 접속을 암호로 제한할 수 있는 기능이다. 서현은 첫 번째 발화에서 혜정에게 암호를 ‘0828’로 알려 줬다고 하였으며, 이에 대해 다겸은 ‘암호를 잘못 알려 줬네.’라고 하였다. ② ⑦은 회의실로의 입장을 청하는 정보이다. 다겸은 혜정이가 암호를 잘못 알아서 접속하지 못하자 두 번째 발화에서 ‘더 편하게 접속하도록 혜정이에게 지금 초대 링크를 보낼게.’라고 하였다. ③ ⑦은 회의실 참여자 목록으로 회의에 참여한 사람들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해 준다. 도윤은 이 목록에 혜정이 없음을 확인하고 첫 번째 발화에서 ‘회의실 참여자 목록에 혜정이가 없는데?’라고 하였다. ⑤ ⑦은 ‘혜정 님이 회의실에 참여하고자 합니다.’라는 알림과 함께 ‘수락’과 ‘거절’ 버튼을 표시하고 있다. 이는 회의실에 입장하려는 혜정의 요청을 수락하거나 거절할 수 있게 한다. 다겸은 세 번째 발화에서 ‘혜정이가 바로 들어오려고 하네. 회의실 참여를 수락할게.’라며 회의실에 입장하려는 혜정의 요구를 받아들였다.

45. 매체의 정보 구성 방식

정답해설 : 혜정은 식혜의 ‘은은한 단맛의 비밀이나 소화제로 기능하는 원리도 알려 주면 이해에 더욱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고, 다겸은 ‘내용을 다 적을 공간이 없’으니 ‘자세한 정보는 ‘더 보기’로 새 창에 제시하자.’고 했다. 이에 따라 (나)에서는 ‘단맛의 비밀, 천연 소화제의 원리’를 ‘+더 보기’로 제시하여 이것을 클릭하면 새 창에서 자세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다. 따라서 정보의 상세 내용을 아래로 펼치는 기능을 활용했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정답 ③

[오답피하기] ① 서현은 논의하고자 하는 항목의 제목을 ‘마신다’는 느낌을 살려 ‘전통 음료 한 모금’으로 하자고 제안했고, 이에 대해 도윤은 ‘한 모금’을 크게 표시하자고 했다. 이에 따라 (나)에서는 제목인 ‘전통 음료 한 모금’ 중 ‘한 모금’을 다른 글자보다 큰 글씨로 제시하였다. ② 혜정은 ‘식혜가 은은한 단맛이 매력적이고 천연 소화제로 사용해 왔다는 점 때문에 소개하고 싶’다고 했고, 서현은 ‘그 두 가지 특징을 핵심 문구와 그림으로 보여 주면 식혜를 소재로 고른 이유가 잘 드러날 것’이라고 했다. 이에 따라 (나)에서는 ‘은은한 단맛’, ‘천연 소화제’라는 문자 언어와 이와 관련된 이미지를 제시하였다. ④ 서현은 식혜의 다양한 종류를 알려 주는 건 어떠냐며 ‘단호박이나 고구마 등을 추가해서도 식혜를 만들잖아.’라고 했고, 다겸은 원래 재료(밥, 옛기름, 꿀)에 재료를 추가하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도식으로 보여 주자고 했다. 이에 따라 (나)에서는 공통 재료(밥, 옛기름, 꿀)에 단호박 등의 추가 재료를 더해 다양한 종류의 식혜를 만들 수 있다는 결과를 도식으로 제시하였다. ⑤ 혜정은 ‘전통 간식’ 항목을 식혜와 어울리는 내용으로 구성하고 두 항목을 연결하면 편’할 것이라고 했고, 도윤은 ‘곧장 이동하는 기능을 넣으면 편리할 듯’하다고 했다. 이에 따라 (나)에서는 ‘전통 간식’ 버튼을 넣고, 그 옆에 ‘(☞클릭)에서 식혜에 어울리는 간식을 확인’이라는 문구를 제시하여 항목 간 이동 기능을 활용하였다.